

경북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팔 걷어… “최적지는 경주”

한국연구재단 용지 공모평가 참석
양금희 부지사, 유치 당위성 설명
“경주, 안정성·주민 수용성 탁월”

1조2000억원이 투자되는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을 경북 경주시가 유치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 시설 유치를 위해 현재 전국에서 경주시와 새만금(군산), 나주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북도는 21일 대전에 있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핵융합 연구시설 용지 공모 발표평가에 참석해 경주 유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발표평가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직접 참여했으며, 경북도와 경주시가 공동 대응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송호준 경주시 부시장은 약 20분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경주 유치 배경과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진 30분간의 질의응답에서는 양금희 경제부지사가 “경주는 50년 원전 운영 경험으로 안정성과 주민 수용성이 탁월하고, 포스텍·한동



경북도는 지난 17일 경주시에서 핵융합 연구시설 경주유치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경북도

대·원자력연구원 등 우수한 연구기관과 인프라가 구축된 핵융합 연구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발표평가에 앞서 10여 차례 대책 회의를 진행했으며, 양 부지사 주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 당위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 신청 부지는 경주시 감포읍 문무대왕과학연구소 2단계 유희부지 내 약 51만㎡ 규모다. 해당 부지는 산업단지 조로 계획된 만큼 연구시설 건립과 착공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경주시는 50여 년간 원전을 운영해 온 경험과 국내 유일의 중저준위 방폐장을 보유하고 있어 주민 수용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포항공대와 한동대는 핵융합 실현을 위한 8대 핵심기술 중 노심 플라스마 제어, 혁신형 디버터 등 주요 연구를 수행 중이며, 석박사 인력 양성이 가능한 핵심 기관으로 꼽힌다. 2025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주는 국제협력 기반을 갖춘 도시로서 핵융합 연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역량도 갖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핵융합 기술 특성상 양

성자가속기, 방사광가속기 등 입자가속기 기반 기술 활용이 필수적이며, 포스텍과 원자력연구원 협업이 가능한 경북 경주가 우수한 연구 입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핵융합 연구시설은 한국 에너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며 “과거 값싼 전력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한 경상북도가 미래에너지인 핵융합 기술 상용화의 기반도 책임질 수 있는 만큼, 경주야말로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주시, 中 지방정부 교류 확대

경주시는 중국을 순방 중인 경주시 대표단이 둔황연구원과 학술 MOU를 체결하고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를 방문해 지방정부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지난 18일 둔황시청에서 둔황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며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19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마고굴을 관리하는 둔황연구원을 방문해 문화유산 보존·복원 기술, 학술 교류, 전시·출판 등 실질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어 경주시 대표단은 20일 베이징으로 이동하고, 21일 오전에는 중국 지방정부의 해외 교류를 승인·관리하는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양완핑 회장을 접견했다.

주낙영 시장(사진)은 “이번 순방을 통해 둔황과 베이징 두 도시와의 협력 기반을 더욱 확실하게 다졌다”며 “포스트 APEC 시대 국제문화 네트워크 확장을 한층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지난 21일 김제휴게소에서 ‘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 포항선 새만금-전주 구간 개통식’이 진행되고 있다.

/전북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전북도 연간 2018억 경제적 편익 예상

새만금과 전주를 하나로 묶는 길이 열렸다. 전북의 하늘과 땅, 바다를 연결해 도약의 기반을 놓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마침내 완성된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 김제휴게소(새만금방향)에서 국토교통부, 전북자치도, 전북자치도의회, 한국도로공사, 해당 시군 및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도로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개발의 외연 확장과 전북 광역 교통망의 대전환을 상징하는 이 길은 단순한 도로를 넘어 지역 간 경계를 허물고 전북 전역을 연결하는 교통 혁신의 기점이 된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새만금(김제 진봉)에서 완주 상관까지 연결되는 55.1km 구간으로, 서해안의 관문 새만금과 전북의 중심 전주 간 이동시간이 기존 76분에서 33분으로 43분(57%) 단축된다. 주행거리는 기존 62.8km에서 55.1km로 8km가량 줄어들면서 차량 운행 비용 절감과 교통사고 감소 등 연간 2018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예상된다.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해안선, 호남선, 순천~완주선, 익산~장수선 등 기존 고속도로망과의 연결성이 강화되며, 전주와 김제, 완주 간 통행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특히 도로 이용 거리가 약 12% 줄어들고, 통행시간은 절반 이상 단축돼 교통 효율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정훈 기자 taiji1819@

해진공, 해운기업 친환경 선박도입 지원

‘한국형 조세 특례’ 제도신설 착수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는 국내 해운 기업의 친환경 선박 도입을 돕기 위해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신설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진공은 국내 해운 기업의 친환경 선박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

특례 지원체계 마련에 나섰다.

해진공은 이번 한국형 선박조세특례 설계 과정에서 국내 친환경 선박 전환 현황, 해운업계 현황, 국제 환경 규제 속도 등을 종합 분석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조세특례 예비 타당성평가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부산시,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시동

착공식 개최… 박형준 시장 등 참석

부산시는 24일 오전 11시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은 40년 만의 수영만요트경기장 전면 재개발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부산 해양레저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뜻깊은 행사다.

수영만요트경기장은 1986년 아시안 게임(1986년)과 서울올림픽(1988년)의 요트경기장으로 건립됐다.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주진우 국회의원, 사업시행자,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조감도.

이번 재개발은 총사업비 1584억 원(2008년 불변가) 규모로 추진되며, 사업 시행자는 아이파크마리나㈜이다. 재개발 구역에는 ▲최신식 계류시설 567척(해상 317, 육상 250) ▲요트전시장 ▲요트클럽하우스 ▲복합문화·상업시설 ▲시민친수공간 등이 조성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울진군, ‘체류형 힐링 여행지’ 부상

접근성 개선… 관광 편의 강화

철도와 고속도로가 연결된 이후, 경북 울진군이 사계절 체류형 힐링 여행지로 부상하고 있다. 천혜의 숲길과 온천, 바다와 미식이 어우러지며 ‘갯고머루는 울진’이라는 새로운 여행 공식이 자리잡고 있다.

울진은 최근 동해선 철도와 고속도로 개통으로 강릉,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의 접근이 쉬워졌다. 아울러 농어촌버스 무상 운행, 관광택시 지원, 왕피천 케이블카 할인 등 관광 편의도 강화하고 있다.

가을에 울진의 숲길은 오감이 머무는 여행지로 변신한다. 금강소나무 숲길과 불영계곡, 신선계곡, 봇도랑길,

월송정 명품만발걷기길은 울진의 대표적인 걷기 명소다.

겨울에는 온천이 여행자를 반겨준다. 덕구온천과 백암온천은 ‘갯고머루의 숲’이라는 테마에 걸맞은 대표 힐링 명소다. 숲길 트레킹을 마치고 뜨거운 온천물에 몸을 맡기면 피로는 물론 마음까지 풀린다.

울진을 걷는 여정은 미식으로 완성된다. 후포항과 죽변항 인근 식당가에서는 제철 대게와 방어 등 풍성한 수산물 요리 여행객의 식탁을 채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숲과 바다, 온천과 미식이 어우러진 울진형 힐링여행으로 누구나 일상에서 벗어나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news8082@

부산시-부산디자인진흥원

‘빅샵’ 1주년 특별 프로모션

부산시와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부산 브랜드샵 빅샵(Big Shop)이 개소 1주년을 맞아 특별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빅샵은 부산의 정체성과 매력을 담은 굿즈로 도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지난해 11월 25일 문을 열었다.

1주년을 맞아 2025 부산 도시 브랜드 굿즈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11개 작품이 신규 입점하며 기존 입점 굿즈 78종을 최대 50% 할인하는 ‘부산 굿즈 워크’도 열린다.

/부산=이도식 기자

울산시

역대 최대 지방세 징수 전망

울산시는 올해 말까지 지방세 1조8380억원을 걷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목표액 1조7000억원 대비 1380억원, 비율로는 8.1%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 징수액은 1조5455억원으로 징수 목표 대비 90.9%를 기록했으며, 11~12월에 2925억원이 추가로 걷힐 것으로 보여 울산시 사상 최대 실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이도식 기자

경남도

e경남몰, 50% 할인 기획전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e경남몰이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말 최대 50%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e경남몰 모든 상품에 대해 25%(최대 2만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e경남몰에 신규 입점한 업체 상품에는 추가 25% 할인(최대 2만5000원)이 적용돼 최대 50% 할인 혜택(최대 5만원)을 누릴 수 있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